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교구일꾼수련회

15일 청계산기도원서 개최

교구일꾼수련회가 15일(목) 청계산기도원 야외기도처에서 이종윤 목사와 부교역자들을 강사로 열린다.

수련회 일정은 11시 교회를 출발하여 12시 청계산기도원에 도착하여 도착예배를 드리고 오후 1시 30분 다락방별로 준비한 점심식사를 갖는다.

오후 2시부터는 공동기도제목으로 산상기도 합주회를 갖고 이종윤 목사의 '교구일꾼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특강이 이어진다. 오후 4시부터는 교구별·다락방별·개인별 기도 후 자율적으로 하산하게 된다.

이번 수련회는 교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정병무 장로가 준비위원장을 맡고 교구장 및

교구간사가 준비위원으로 위촉됐다.

다락방찬양대회 접수 시작 지정곡은 찬송가 446장

1999년 다락방별 찬양대회의 세부사항이 결정됐다.

예선은 5월 7일(금) 오후 7시부터 1층 예배실에서, 결선은 같은 달 9일(주일) 찬양예배 후 있게 된다. 대회예선 지정곡과 자유곡 등 각각 1곡씩 부르게 된다. 지정곡은 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1절이다. 율동 및 악기 사용은 자유다. 신청은 다락방별 또는 몇개 다락방이 연합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접수는 오늘(11일, 주일)부터 사무국에서 받는다.

북한난민 보호 UN 청원 천만명 서명운동 발대식

북한 난민 구출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북한난민보호를 위해 UN에 난민인정과 보호시설 설치 등 2가지 사항을 청원하기 위한 천만명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16일 아침 7시 한국기독교백주년 기념관에서 가진다. 이는 현재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등지를 헤매고 다니는 우리 동포들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기아와 공포에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기총은 운동본부를 발족시켜 UN에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것과 난민 보호를 위한 시설을 국경지대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 기독교인을 비롯한 전세계 기독교인들이 가능한 경제적 지원도 할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심방 기간을 맞이하여●

"심방, 어떤 건가요?"

이성득(목사)

봄철 일제심방이 시작됐다. 이미 심방 일정은 다 잡혀져 있고 각각 가정 또는 다락방 별로 심방을 받게 된다. 어떻게 심방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심방을 할 것인가?

한번쯤 심방에 대해 짚어볼 때인 것 같다.

어린이들도 참석토록

심방을 받는 가정에서는 먼저 주님을 영접하는 심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눅9:48, 행 10:23-27). 특히 예배를 드릴 때는 어른들만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까지 포함, 온 가족이 참석하도록 한다.

침소, 전화벨, 음식준비 등 예배에 방해가 될만한 요소들은 사전에 조치해 놓으면 좋을 것이다.

좌석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좌우에 심방대원들(교구장, 지역장, 다락방장, 권찰)이 좌석하고 심방받는 가정의 식구들이 목회자와

마주 앉는 것이 바람직하다.

덕스러운 대화를 하자

심방 중 성도들은 화두가 금전 거래, 다른 교우·다른 가정의 이야기, 남의 비판, 험담은 절대 삼가야 하고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거나 상처가 되는 말, 교역자나 교회에 대한 불평의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심방 목적에 부합하는 예의와 질서와 신앙적이고 덕스러운 대화를 해야 한다.

심방이란 들보는 것

심방이란 하나님의 일로서 그의 양무리를 들보는 것이다. 심방이란 말에는 '방문한다' '돌아본다' '권고한다' 는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

셨으니(마 9:35) 그의 제자된 자마다 병든 자와 약한 자를 돌보아야 한다.

심방은 목회자가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파악해서 주님의 양무리를 잘 먹일 수 있도록 돌아보고 약한 교우, 시험 중에 있는 자, 환난을 당하거나 병든 자들을 돌보며 기도하고 위로하되 무엇보다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다.

결과는 믿음의 진보

바울은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살전5:14)고 했다. 은혜스러운 심방의 결과는 말씀이 충만한 축복의 문이 열리고(암 8:11, 눅20:38-42)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대접한 것이 되며(마25:31-44) 새로운 용기와 위로를 받게 되고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된다.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이 지닌 문제를 성경 말씀을 통해 해결의 방안을 제시해 주고 기도의 제목을 나눔으로 격려와 신앙 생활에 활력을 공급해 주는 심방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겠다.

이사야 강해

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III)

이사야 19장 18 - 25절

자녀가 실수하거나 혹은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책망을 하거나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때리고 났더니 마음이 시원하다고 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때도 결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치기 위하여 때리는 때입니다.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때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1.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타격을 하신다

애굽은 앗시리아로부터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을 받았습니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상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치십니다. 성경을 보면 서너 가지 방법으로 치시는데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또 전쟁으로 때리시기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때리시는 방법 가운데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때리시는 방법 가운데는 질병과 가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때리시는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은 고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을 보면 의사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가 고치는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마 19:2).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삶도 고치시고 막힌 것도 뚫어주시며 구부러진 것도 펴주십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종종 때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후예가 아니고 새 피조물입니다(고후 5:17). 고침을 받은 후 건강해지면 전보다 더 건강해 질 것입니다.

3. 회복된 후에는 많은 복이 따르게 된다

- (1)기도 하고 응답 받는 복이 온다
-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하는 복보다 더한 것

- (4)입술의 봉사가 있다
-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여”(18절).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구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찬양하며 기쁘게 하다가는 말입니다.

- (5)희생 제물을 바친다
-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의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사 19:18 - 25)



이중운 목사

은 없습니다. 아무리 끈고한 지경에 이르더라도 아무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20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22절).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면 기도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 (2)여호와를 위하여 살게 되는 복이 온다
- 애굽 땅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께 제단이 있다고 했습니다(19절). 우리도 인격의 한 복판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제단이란 제물을 바치는 곳이고 제물은 피흘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제일 큰 축복입니다.

한편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세운다는 것은 증거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단과 기도는 회개와 신앙을 의미합니다. (3)하나님께 속한 것을 선언한다

새 사람이 된 또 하나의 증거는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 후에는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18절의 다섯 개의 성이란 상징적 의미이며 실상은 여러 도성에서 애굽 말을 하지 않고 히브리 방언, 곧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21절).

애굽인이 여호와를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제물과 예물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제물과 예물의 차이는 제물이 짐승을 잡아바치는 것이라면 예물은 식물성, 곧 곡식이나 식물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같이 희생의 제물입니다. 이와 같이 새 사람이 되면 희생의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희생의 제물은 천국에 보화를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들만이 바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굽인과 앗수르인이 자유소통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23절). 이 예언은 알렉산더 대왕 때 성취되고 오순절에 완성되었습니다.

애굽과 앗수르와 이스라엘은 단순히 수적으로 셋이 아니라 온 세계를 말하는 것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24절).

하나님의 축복이 온 이스라엘과 온 유다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 가운데 포함된 것을 감사히 여기며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가정부

분재감상회를 다녀와서

권오철(새가정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아름다운 가정 생활을 배우고 있는 새가정부는 토요일 저녁에 모이고 있습니다. 박귀환 목사님을 지도로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각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대해 말씀으로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때면 모일 때마다 서로의 가정을 보며 신선한 도전을 받기도 하고 격려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 선배 가정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배우고도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에는 부감 집사님 덕으로 교의 수업을 다녀 왔습니다. 수업제목은 '분재감상회'. 정말로 집사님 때에는 작고 아름다운 분재들과 조각, 수석 등이 가득하여 마치 분재 박물관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나무와 돌들을 집사님 때에는 하나하나를 귀하고 정성스럽게 가꾸어 놓아서 지으신 이의 솜씨를 잘 감상할 수 있었습

니다. 우리들도 그러하여 세상에서는 너무나 평범하고 때로는 초라하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으로 자라고 감사함으로 단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더욱 아름다운 것은 부감 집사님의 살아가시는 이야기와 여부감 권사님의 섬기시는 손길을 통해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익히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분의 모습은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새가정부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또는 이미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은 함께 나와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사랑부

날마다 고치시는 은혜를

조대영(사랑부 지도)

어느덧 사랑부가 개교한 지 7년이 되었다. 모두들 알고 있듯이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한 일원으로 자기의 자리를 잃지 않아야 한다. 장애인들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에 이들을 위한 부서를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다양한 기도와 관심에 의해 구원과 치유의 증거들이 날마다 보여진다. 특히 새성전 건축 설계에 담긴 사랑부를 위한 배려를 보며 21세기를 향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막 상상이 되며 즐거운 미소를 지어 보게 된다.

사랑부를 향한 선입견을 조금 바꿔 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이곳은 아주 힘든 노동이나 대단한 사랑의 행위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 여러 교회 학교의 한 모습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함께 실천하노라고 말할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학생들의 밝은 모습과 가장 어린이다운 순수함을 우리 교사들은 배우고 느끼며 여기에서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의 여행 연습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4월은 장애인의 달이며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달에 특별히 사랑부는 정말 의미있는 시간들을 보내려 한다. 4월 18일 6명이 학습을 9명이 세례를 받게 된다. 이들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묻는 문답의 시간이 잘 진행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기를 위해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를 요청한다. 또한 이날 다른 교회 학교 형제들과의 통합교육을 위해 매달 실시하고 있는 연합예배에 청년부가 함께 하며 이들과 찬양을 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연극 공연을 관람하게 된다. 저녁 찬양 예배에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사랑부 찬양대의 찬양의 시간도 가지려 한다. 이들의 어눌한 찬양이 지만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의 유창한 찬양보다 값지고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리라 확신한다.

사랑부 학생들은 차량을 동원하여 수송을 하여야만 하는 또다른 봉사의 시간이 있다. 매주일 숙소에서 각 가정에서 교회를 향해 달려오는 그들의 발이 되어준 차량 봉사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들의 건강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점심과 간식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수많은 손길들도 한쪽 구석에서 말없는 봉사를 해오고 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해 특별히 음악을 통한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선생님들과 공과를 준비하여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들의 커다란 기도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힘쓴 모든 선생님들에게는 하늘에서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랑부는 4일 부활주일에 III부예배 함께 참석,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학습 세례자 교육을 받고 11일 학습 세례자 문답을 합니다. 18일에는 청년부와 연합예배(연극 공연)를 드리고 28일은 생일잔치를 갖고 교사월례회를 엽니다. 20일(화)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유아부

“아기들이 모여 예배드려요”

갓난 아기부터 36개월된 유아에 이르기까지 아기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다. 바로 이전까지 탁아부라고 했던 유아부실이다.

유아부에서는 부모들이 경건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유아들을 맡는다. 그러나 거기서 더해 유아들도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한다. 그래서 '탁아부'가 아닌 '유아부'다.

아기들은 장난이 좋아 예배시간을 못참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아부에 오면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속에 각인된다. 이는 어느 순간엔가는 효력을 발휘하여 부모들을 놀라게 한다.

유아부의 멤버는 다양하다. 부모의 손에 이끌린 아기, 자기의 발로 걸어오

는 아기도 있고 세상에 태어나 처음 오는 아기도 있다. 모든 유아들에게 교사들은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을 가르친다. 당연히 아기들은 낯설어 울기도 하고 교사들은 과연 알아듣거나 하는 건지 의아심을 품기도 한다.

그러나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기에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확신을 모든 교사들은 가지고 있다.

갓난 아이가 오면 모든 교사들이 함께 보며 축복의 말을 한마디씩 다한다. 단번에 50여회 이상의 축복의 말을 받는 것이다.

어린 아이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알고 충성을 다하는 유아부 교사들에게 한없는 은총이 임하길...

장로 · 집사 · 권사 투표 5월 실시

집사 · 권사는 5월 16일, 장로는 30일 선출 위한 공동의회 개최

장로를 비롯 집사 · 권사 선출을 위한 선거가 5월 중 실시된다.

당회는 4일 임시 당회를 열고 제 6대 장로 선출을 위한 방법과 집사 · 권사 투표 절차를 결정했다.

장로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는 5월 30일(주일) 찬양예배 후 있게 된다.

선출 대상은 70세 이하의 흠이 없는 신자로서 본 교회의 안수집사 · 협동장로 · 권사이다. 선출 예정 인원은 모두 7명을 노회에 청원했다.

공천은 5월 2일(주일) 찬양예배후 정기 제직회에서 제직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 중 배수공천을 하여 공동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배수공천수인 14명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그대로 제출된다. 공동의회는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으로 결정한다.

집사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는 5월 16일(주일) 찬양예배후 실시된다. 선출대상은 70세 미만의 본교회 서리집사 중 3년이상 봉사한 흠이 없는 신자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단 이명해은 타교회 직분자는 교회 등록 2년이상 되어야 한다. 선출인원은 모두 20명이다.

공천은 5월2일 찬양예배 후 정기제직회에서 제직회원들이 1회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 중 배수공천한 40명을 공동의회에 제출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배수공천

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을 그대로 제출하게 된다. 공동의회는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으로 결정한다.

한편 권사 투표는 집사 투표와 마찬가지로 5월16일(주일) 찬양예배 후 실시된다. 선출 예정 인원은 50명이다.

대상은 50세 이상된 여자 집사 중 흠없이 7년이상 봉사한 신자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단, 이명해은 타교회 직분자는 본 교회 등록 2년 이상되어야 한다.

50명에 대한 공천은 이달 29일(목) 당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5월16일 찬양예배 후 실시되는 공동의회에서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 득표를 얻어야 한다.

매주 수요일 장로기도회

우리 교회 장로들이 부활절을 기해 매주 수요일 II부예배 후 기도회를 갖고 있어 온 교회에 새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이처럼 장로들이 기도회를 정례화한 것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빠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장로들은 교회내 병약자, 환난 당한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 각 부서와 기관, 프로그램을 위해 매주 기도하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교회 건축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다. 7일(수)엔 이용선 장

로의 인도로 교회당 403호실에서 병환중이거나 서울지역을 벗어나 계신 분을 제외한 모든 장로들이 전원 참석하여 교역자를 위한 기도 등 12가지 제목을 두고 뜨겁게 기도했다.

등정

- * 이종운 목사는 15일(목)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chapel에서 설교한다. 또 16일(금)에는 북한난민보호시설 UN청원 발대식을 갖는다.
- * 전광영 집사(4교구, 임마누엘 찬양대원)는 미국 뉴욕 Soho갤러리 전속 작가로 초빙을 받았다. 전 집사의 작품은 현재 Soho갤러리에서 전시중이다.
- * 이번 주 식사는 이영기 장로 · 이영숙 집사가 가정에서 제공했다.
- * 베드로 제2선교회는 12일(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 방문을 한다.
- * 오순배 성도(대학부) 15일(목) 군에 입대한다.

제 15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① 4월 12일(월) 오후 2시 - 5시 20분
 - 제 1교시 / 여호수아서 연구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예배와 찬양 (곽상수 교수)
- ② 4월 19일(월) - 오후 2시 - 5시 20분
 - 제 1교시 / 여호수아서 연구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치유목회의 방법과 실제 (정정숙 교수)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선교지에서 온 소식

현지인 22명 복음 영접

박종상 선교사는 최근 선교지 현지인을 통해 22명이 복음을 받아 주님을 영접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다. 아울러 성도들에게 현지인 여성 사역자 양육과 난민들을 모아 진행 중인 성경공부 사역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특별히 안전상 문제로 사역지를 밝힐 수는 없으나 선교사 사역을 위한 기도도 부탁했다.

한편 박 선교사는 현지에서 6개월 비자연장을 받았다.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구일꾼수련회를 위해
2. 5월에 실시될 장로 · 집사 · 권사 투표를 위해
3.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서울성경대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